

“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은 사람! 도서관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 모든 도서관 이용자는 현재 또는 미래의 유권자입니다.
 - 모든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 도서관을 위한 정책 개선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
-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 모든 사람들은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으며, 모든 조직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 도서관은 모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의 기반이며, 모든 국민들을 당연한 유권자로 만들어 가는 지식정보의 요람입니다.
-
- 도서관은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사회 발전의 근간입니다.
 - 올바른 도서관 정책이 훌륭한 도서관을 만들 수 있고,
 - 훌륭한 도서관은 당연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
- 하지만 훌륭한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서관 제도와 정책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목차



- 1 • 정책 제안 배경
- 2 • 현황 및 정책 제안
- 3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서관 정책 개선

1 | 정책 제안 배경

도서관 정책 개선이 시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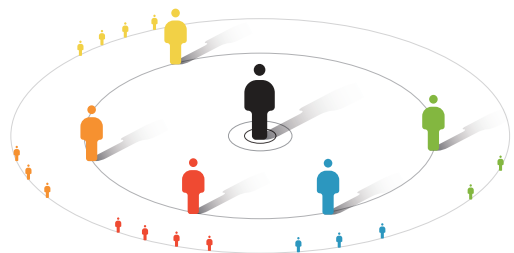
도서관은 국민과 커뮤니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회의 중추적인 기관입니다.

- 도서관을 이용하는 국민은 연간 3억 명이 넘으며,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기관은 도서관이 유일합니다.
-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도서관은 모든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도록 하고, 커뮤니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식정보를 설계하는 중추적인 기관입니다.



도서관은 지식정보와 국가의 문화 경쟁력을 확충할 수 있는 핵심 기관입니다.

- 디지털 혁명, 데이터 혁명의 시대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식정보와 문화의 성장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 도서관은 정보·사회·문화·교육 전반에 걸쳐서 국민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식정보와 문화 창조의 기관입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핵심 기관으로서 도서관의 역할 강화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선진국일수록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1 | 정책 제안 배경



하지만 아직 우리 국민들은 디지털 혁명 속에서 지속 가능한 꿈과 미래를 실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메타버스 플랫폼의 등장 등 급격하게 진화하는 지식정보환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정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서관 인프라가 시급합니다.



디지털 기술 중심의 사회 혁신은 디지털 역량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정보 이용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지식정보 소외 계층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 청년층, 장애인, 고령층, 어린이, 일반 국민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 없이 지식정보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지식정보를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모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도서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 도서관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지식정보를 차별 없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 디지털 변혁의 정보·사회 환경에서 도서관이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고 모든 국민들의 알 권리, 지적 자유를 보장하도록 도서관 정책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2 | 현황 및 정책 제안

2.1 | 청년

2.1.1 청년 문제 현황



전 국민이 공감하는 청년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청년실업'

- 한국 청년실업률*, 전체 실업률 대비 2.8배...OECD 38개국 중 5위
 - 국제 비교에서 한국의 청년실업률 상승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전체 실업률에 견준 비율도 높은 것으로 분석. 한국의 청년 실업 문제 심각(한겨레신문, 한국 청년실업률, 전체 실업률 대비 2.8배...OECD 5위 21.10.20.)
 - * 청년실업률 : 15~29세 사이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을 의미
- 약 70% 국민들은 청년문제 중 '청년실업'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생각
 - 모카 MOQA, 청년문제와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조사 결과(18.07.09.~07.16.)
- 서울시민들은 2020년 경제이슈 1위(49.6%)로 '청년실업 및 고용 문제'를 선정
 - 서울연구원, 서울지역 표본 1,200가구 대상 설문조사, 1-3위 순위 합계 결과(2019년 4/4분기)
- 청년들의 고민 1순위 역시 '취업'으로 나타남
 - 서울연구원, 시민이 뽑은 새해 경제 이슈 2위는 청년실업, 1위는?(21.12.30.)



2 | 현황 및 정책 제안



공정에서 배제되는 기회의 박탈, '취업 준비 공간'부족



- 입시경쟁, 스펙경쟁, 취업경쟁 등 불공정한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해답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미흡
 - 다른 형태와 대안적 삶을 추구하기 위한 실패할 자유, 도전할 자유 부족
- 청년들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도서관이라는 공간과 취업정보센터를 통한 일자리 정보를 얻기 위해 졸업을 연기하는 등 '취업 준비를 위한 공간'에 대한 요구는 절실
 - 청년 구직자들에게 '취업 준비 공간'은 단지 책을 펴고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같은 목표를 가진 이들과 소통하며, 심리적 안정까지 얻는 터전임
 - 청년 구직자들은 '도서관'을 대표적인 공간으로 희망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역할 확대를 요구 중 (뉴스핌, '구직청년 안전망 부재...알바·취준생 이종고', 21.10.24)



구직청년들, 사회적 안전망 부재로 인한 이종고



- (정신적 우울감) 코로나 19로 인한 외부 활동 제약으로 인해 청년 구직자들 간의 단절과 고립감이 극대화
 - 청년들의 자존감 하락 및 사회적 관계 결여
- (취업정보 접근성 한계) 고교 또는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무적자'가 되어 학교에서 제공하는 도서관, 취업센터 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어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로 몰림
 - 유료 기반의 사적 서비스(카페, 독서실, 스터디룸)는 비용부담뿐만 아니라 취업정보 부재로 청년의 취업 지원으로 보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

2.1.2 청년 정책 제안



청년들의 새로운 삶 방식을 모색할 수 있는 청년도서관

-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청년도서관 운영 확대
 - (국내사례) 청년허브의 지리산×청년도서관 운영 사례
“전환이 필요한 나! 새로운 방식의 도전이 가능할까?”
- 청년 주거 복지정책의 일환인 ‘행복주택’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청년 공동체 확대
 - (국내사례) 강동구 SH강일리버파크 11단지 작은도서관 ‘행복책방’ 운영 사례



청년 취업의 허브가 되는 공공도서관

- 공공도서관에 취·창업정보센터를 설치하여 도서관의 지식정보와 취·창업 정보 동시 제공
 - 미국, 일본에서는 이미 공공도서관이 취업정보가 가장 빠르게 집결하는 장소로 정착
 - 청년층을 위한 취업간행물, 관련 자료 등을 최신판으로 제공
 - ※ (해외 선진사례) 미국 위스콘신 밀워키 공공도서관, 뉴욕 공공도서관 등
- 고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전문교육 제공을 통한 취업 준비 지원
 - 직업정보 탐색,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등 전문교육 실시
 - ※ (국내 선도사례) 인천중앙도서관 ‘취업교육’, 기흥도서관 ‘청년 취업 지원프로그램’
- 취·창업을 위한 신기술 체험과 창의·협력 공간 제공 및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미디어 창작실(AR·VR 체험과 관련 개발 지원), 그룹 세미나실(창의·협력 토론) 등의 시설 확대 및 최신 기기(드론, 노트북 등) 확충
 - 미디어 리터러시 및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2 | 현황 및 정책 제안

2.2 | 장애인

2.2.1 장애인 문제 현황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확보를 통한 알 권리 보장

-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의 문화복지와 정보복지를 위하여 도서관을 매개체로 한 다양한 국가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체감하는 욕구와 만족도는 차이가 발생
- 모든 국민에 대한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법」이 다양한 장애 유형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건립에 있어 차별을 야기
- 전국 장애인도서관(43개관) 민간 운영으로 장애인 서비스 품질 저하 및 협력 체계 부실



사회의 진화에서 소외되는 상황

- 생애주기별 독서진흥 정책에 있어 영유아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에 대한 독서정책 소외
- 장애유형별, 장애정도와 특성 등에 따라 도서관 자료, 시설 및 공간, 문화프로그램 및 의사소통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고, 현실적으로 도서관은 그 요구를 충족시켜 줄 인프라, 도서관자료, 인력 등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동등하게 이용 가능한 공공도서관 공간 부족



대체자료 확충이 후진국 수준

- 2020년 기준 연간 도서 출판량 대비 11.7% 수준의 대체자료 제작에 그치고 있음
- 시각 및 청각장애인 중심 대체자료 제작으로 장애유형별 이용 가능한 대체자료의 편차가 큼
- 전국 공공도서관 1,172개관(2020.12.31. 기준)을 통한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DREAM) 접근 및 이용 불가

2.2.2 장애인 정책 제언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향상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도서관 기능 강화
 -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환경 구축을 통해 도서관이 장애인 정보접근성을 확보
 - 도서관을 통해 지식정보 소외계층의 정보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의 구축이 필요
 - 정보접근의 내용을 비롯해서 장애유형에 맞는 적절한 대책 마련
 - 장애인 접근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무인대출반납기의 설치가 확대되어야 함
- 「도서관법 시행령」 장애인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자료 기준 개정(청각장애인도서관 기준 포함)
- 광역지방자치단체 별 거점단위 공립장애인도서관 조성 및 운영 지원



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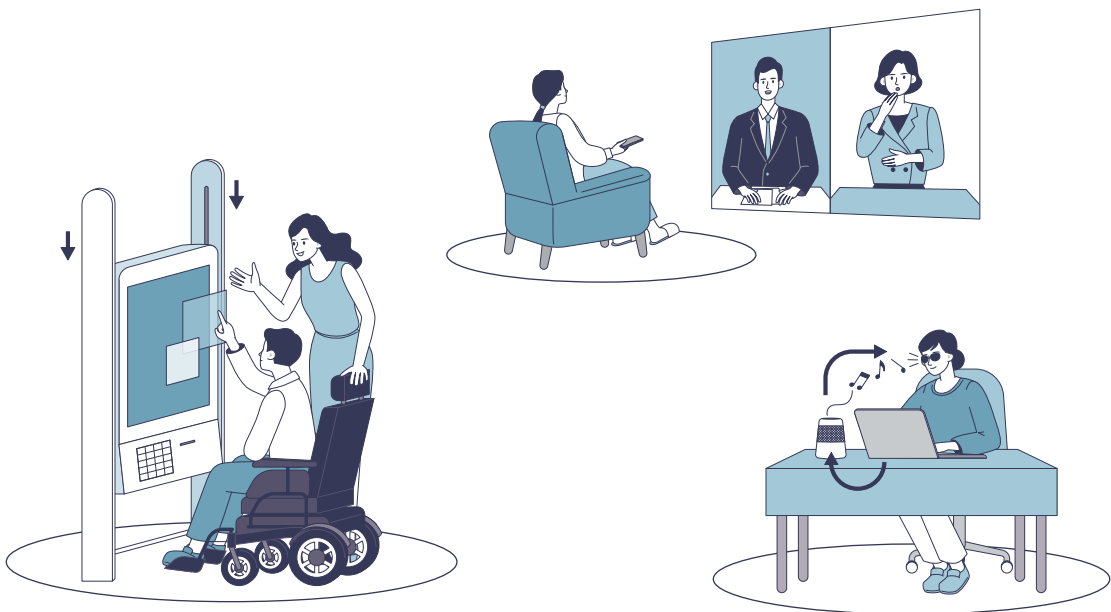
-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정책으로 영유아 장애인, 장애인 부모 등을 대상으로 북스타트 확대 운영
- 정보접근의 내용을 비롯해서 장애유형에 맞는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수
 - 장애유형별 디지털정보화 교육 및 지원 확대, 디지털기기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장애 특성에 맞는 공공도서관 내 다양한 독서보조기기 확충 필요
- 모든 이용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공공도서관 건립 및 인증제 추진
 -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중심의 장애물 없는(Barrier-Free) 도서관 인증제도 개선
 - 발달장애나 지능 저하를 겪고 있는 느린 학습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끄러운 도서관 조성의 확대가 필요
-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된 메타버스 관련 정책 수립
 -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유니버설 디자인을 반영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2 | 현황 및 정책 제안



대체자료 확충을 위한 정책 수립

-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대체자료 제작의 복제대상 확대(어문저작물→전체)
 - 납본체제 개선을 통해 디지털파일 의무납본 제도 시행 및 적정 보상금 지원으로 대체자료 제작을 위한 디지털파일 확보
-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DREAM)의 전국 공공도서관으로의 접근점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평등한 대체자료 접근권 보장
- 장애 유형별 맞춤형 대체자료의 확대 및 다양화가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문맹률이 높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청각 자료 및 디지털 자료들에 대한 구비 및 대여 서비스 시행
-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수어영상전화기 등 설치·운영
 - 수어영상전화기 설치, 이용정보 수어영상 안내서비스, 보이는 화면서비스, 채팅상담서비스 추진



2.3 | 고령층

2.3.1 고령층 문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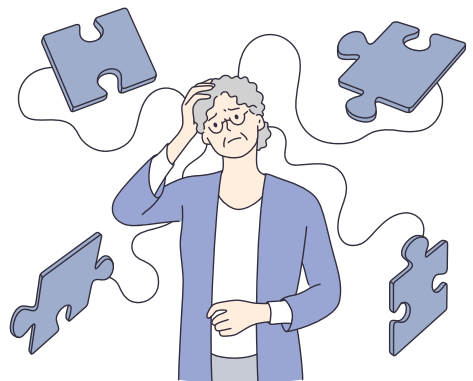
은퇴 이후의 삶이 모호

-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직장에서 은퇴 이후 삶의 기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누구나 반드시 새로운 제2의 직업 또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 시대 도래



디지털 환경에서의 리터러시 저하

- 고령층은 청년세대에 비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처 및 활용에 미숙
 - 조직에 속하지 않은 개인은 디지털 환경과 미디어에 대한 적응이 더 어려울 수 있음
- 고령층의 디지털 리터러시 저하는 고령층과 청년세대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 커짐



2 | 현황 및 정책 제안

2.3.2 고령층 정책 제안



고령층의 세컨드 라이프 환경 조성

-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창업 기초지식, 정보수집 및 정보교환
- 고용문제에 곤란을 겪는 지역민을 위한 '일하는 기분 응원 코너' 설치
- 세컨드 라이프 서가 시행
 - 은퇴 후 취업과 창업,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자료(도서 등) 제공
 - 연금문제, 다중 채무, 약질 상법 등에 대한 법률 상담기관 안내, 관련 도서 및 법령 안내



고령층과 청년세대의 연계

- 고령층의 경험과 지혜를 멘토로서 청년세대 및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청년세대의 강점인 정보와 기술을 사회 고령층에 환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개인의 지식정보,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이를 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 세대간의 소통을 통한 세대간 갈등 완화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필요

-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도별 디지털 미디어 공공도서관 개관
 - 노인을 포함한 정보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
 - 시도별로 거점 지역에만 세워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읍, 면, 동 단위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마을의 거점 시설을 통해 신청하면 단체로 디지털 미디어 공공도서관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함
 - 모듈별, 레벨별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

2.4 | 어린이·청소년

2.4.1 어린이·청소년 문제 현황



어린이·청소년 교육격차의 확대

- 어린이·청소년들의 사교육 의존 심화로 소득과 거주지역 등에 따른 교육격차 확대
- 팬데믹 상황에서 학력격차와 돌봄격차 심화
 - 원격수업 확대로 취약계층의 가정 내 수업 지원과 돌봄 등에서 공백 심화
 - 교육격차가 다시 빈부격차로 연결되는 고착화 문제
 - *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1' 보고서: 사교육을 받은 시간, 디지털기기 성능으로 수업에 방해 받은 비율 등에서 소외계층 학생 피해 증가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부작용의 심화

- 어린이·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유튜브, 게임, 틱톡 등)
 - 자극적인 디지털 미디어의 일상화로 어린이들의 문해력과 사고력의 저하를 초래
- 초등학생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현상 심화
 - 팬데믹 기간 동안 초등학생과 청소년의 과의존 비율이 증가
 - * 여성가족부 2021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 역량 개발 필요
 - * 2022년 개정교육과정: 미래세대 핵심역량으로 디지털 기초 소양강화 및 정보교육 확대



미디어 오남용으로 인한 악영향 증가

- 각종 소셜미디어, 유튜브, 인터넷 언론 등 정보과다(인포데믹) 현상 심화
- 정치/경제/사회/의료 등 분야에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조작 정보의 확산
 - 이로 인해 어린이·청소년의 균형잡힌 사고력 성장을 저해

2 | 현황 및 정책 제안

2.4.2 어린이·청소년 정책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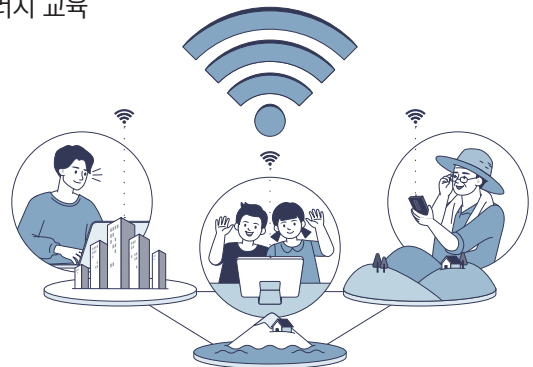
도서관을 통한 어린이·청소년 교육격차 완화

-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주도로 독서교육 및 독서활동, 독서동아리, 교과학습활동 지원, 인문학 프로그램 제공 등(온라인/오프라인)
- 공공도서관을 통해 방과 후 학습과제 지원, 독서동아리 및 어린이·청소년 독서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청소년 인문학 소양 교육 강화, 주말 가족단위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지원
- 광역자치단체 또는 복수의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찾아가는 디지털 이동도서관 운영
 - 농산어촌 등의 학교·공공도서관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 활동
 - 어린이·청소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 강화



도서관을 이용한 어린이·청소년 디지털 기초역량 강화

-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청소년 디지털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체험/실습 프로그램 운영
- 공공도서관의 메이커스페이스, 미디어 랩 등을 통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과 활용기회 확장
 - 도서관의 디지털 기기와 장비를 활용한 창작과 협업, 공유의 기회 제공
- 어린이·청소년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해소를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과 교육 제공
 - 디지털 부작용 관련 독서지도, 독서요법 및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도서관을 이용한 어린이·청소년 미디어 활용능력 강화

-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청소년 미디어활용능력과 비판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체험·실습 프로그램 제공
- 영상, 이미지 등의 제작, 편집, 공유 및 윤리적 활용 등을 교육하는 미디어리터러시 프로그램 제공
 - 각종 미디어에 대한 분별력을 높이는 뉴스 활용교육 프로그램 제공



학교도서관 기능 활성화를 통한 초·중고 공교육 기능 정상화 추진

- 인문 교양 교육, 인성 함양 등 종합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 기틀 마련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력,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에 다양하고 풍부한 장서 비치
 - 모든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비를 5% 이상 배정하도록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명시하여 제도적 장치 마련
-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핵심자원인 사서교사의 학교당 최소 1명씩 의무배치를 조속히 현실화 추진
 - 현재 초·중등학교 10개교 중 2개교에만 사서교사 배치
 - 이로 인해 헌법에 명시된 기회 균등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모든 초·중등학교에 사서교사 필수 배치
- 사서교사의 배치는 향후 당당한 유권자로 성장할 학생들에게 전문적으로 지적 소양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전인적인 인재 양성이 가능



2 | 현황 및 정책 제안

2.5 | 일반 국민

2.5.1 | 일반 국민 문제 현황



인문정신의 위기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 발생

- 인문학 위기 현상은 점점 심화되는 추세(2021.12. 「제2차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안)(2022~2026)」)
 - 인문정신 부재로 인한 높은 자살률, 흉악범죄 발생, 자극적 젠더 갈등 양상 등 다양한 사회문제 증가 추세
- 입시 지도 등의 이유로 초·중·고 제도권 교육에서의 인문정신 함양 교육에 한계 발생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공동체 파편화 현상 심화

- 코로나로 인해 사람 간의 소통 방식이 언택트 환경으로 바뀌면서 무엇보다 사람 간의 원활한 소통이 위협받는 현상이 발생
 - 코로나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는 더욱 파편화되고 많은 사회적 관계가 파괴될 우려가 점점 커짐
- 파편화된 사회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공동체를 제공하는 것이 팬데믹이라는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중요한 일로 부상함



초중고 공교육의 위기 및 비정상화 현상 발생

- 우리나라의 초중고 공교육의 파편화 및 위기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특히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공교육은 약화되고 사교육이 중시, 확대되는 추세임
- 왕따 문제, 학교 폭력, 잠자는 수업, 인성교육 부재 등 다양한 문제 및 한계 발생



급속한 디지털화로 지식정보소외계층의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 심화

- 코로나 현상으로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사회 각 부문에서 급속도로 빨라짐
 -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익숙지 않거나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계층의 디지털 소외 현상이 코로나 이후 더 심각해짐(202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코로나로 더욱 심화된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 마련이 시급



4차 산업혁명시대 기업, 연구소 등의 기술 경쟁력 제고 필요

- 새로운 ICT 기술의 등장과 이를 융·복합하여 가치있는 서비스나 재화로 생산하기 위한 기업, 연구소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시대를 견인할 핵심 기술을 적극 창출하고 보유하는 것이 기업과 연구소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필수적



글로벌 시대 다문화 가족과 함께 공존하는 상호존중 문화 필요

- 2020년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은 전체 35만 가구(가구원 106만명)로 전체 가구대비 1.7%(가구원 2.1%)를 차지하며, 다문화 가족 증가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2021. 「2021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은 최근 낮아지는 경향으로 코로나19로 다문화가족이 겪는 일상적 차별 및 소외 심화
 - ※ '15년 54.0점 → '18년 52.8점('18년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
 - ※ '코로나'라며 조롱당하는 다문화 출신...커져가는 혐오와 차별(2020.11.9., KBS)

2 | 현황 및 정책 제안

2.5.2 일반 국민 정책 제안



인문학 전진기지로서 인문학 뉴딜을 견인할 『도서관 인문학 아카데미』 설치·운영

- 전국 모든 공공도서관에 『도서관 인문학 아카데미』를 설치하여 국민의 인문정신 함양을 위한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 도서관의 풍부한 인문학 장서, 알찬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서, 지역 단위의 인물 자원을 연계한 협업 체제 마련으로, 지역 공공도서관을 인문학 중흥의 핵심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필요
- 다양한 인문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생활 밀착형, 지역 친화적 인문활동 모델 구축



지역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공공도서관 기능 강화

- 파편화된 사회관계 회복을 위한 공동체 환경을 지역에 촘촘하게 설치된 공공도서관에 구축하는 전략 필요
-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 개발 및 마을 공동체 연계 추진을 통한 주민 네트워크 기능의 강화
- 문화교실, 독서활동, 동아리, 귀농귀촌인 모임, 각종 주민자치회의 및 모임, 강의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간 제공 및 개방 확대를 커뮤니티 룸 구축 및 지역 생활문화모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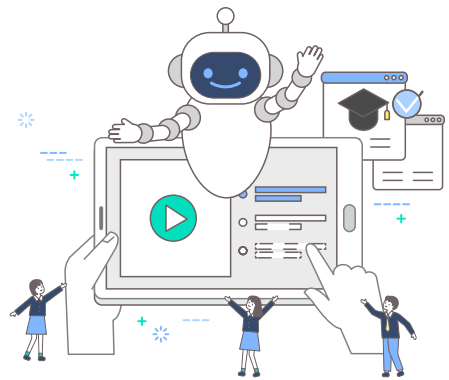
전국 도서관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 실시

- 디지털 시대의 모든 국민들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전국 모든 공공도서관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
 - 전국 공공도서관에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한 기자재 및 인력 확보 의무화
- 특히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을 노인층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중심 센터화 추진
 - 농산어촌 공공도서관의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아웃리치 서비스 수행을 위한 이동형 Station (이동도서관) 구비 및 운영



4차 산업혁명시대 기업, 연구소 등의 기술 경쟁력 기반이 되는 『전문도서관진흥법』제정

- 기업(또는 연구소 등)의 도서관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입, 융복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정보 제공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전문도서관을 적극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기술 혁신을 위한 경쟁력은 인문학 독서를 바탕으로 생긴 통찰력을 통해서 제고될 수 있고, 이는 기술 혁신의 강력한 자산이 됨(2021.12. 매거진 한경)
- 『전문도서관진흥법』 제정을 통해 전문도서관의 범주 확립과 전담인력 확보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꾀하고, 궁극적으로 향후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가능



전국 모든 공공도서관에 다문화 이용자를 위한 특화자료 운영 추진

- 다문화 가족이 국적, 인종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한국 사회에서 정착하고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 구축
- 도서관에서 다문화 가족의 독서문화, 정착지원 및 시민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다문화 이용자를 위한 특화자료 운영 추진
- 다문화 가족 대상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 다문화 나라별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대상 사회 적응 교육, 다문화 가족 자녀 독서지도 프로그램, 다문화 가족 독서상담 및 치료



3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서관 정책 개선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도서관은 장서, 사서, 시설이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을 때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3.1 | 사서 확충 및 사서 인권 보장



사서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 평생교육의 지속적 요구, 문화사회에 따른 문화적 요구, 디지털 정보화 시대로 인한 환경 변화, 팬데믹 사태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요구, 지자체 인력 지원 등 공공도서관 사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나, 사서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낮고 사회적 인식 또한 낮은 편입니다.
- 현재 정규직 사서가 배치된 공공도서관의 수는 전체 공공도서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정규직 사서의 비율도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 1관당 사서(정규직) 수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자체	3.4	3.5	3.6	3.8	3.8
교육청	7.2	7.2	7.5	7.5	7.5

-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사서의 도서관 배치가 필수적이며, 이는 급변하는 정보사회 환경에 대응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지원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입니다.
- 사서직의 근무환경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의 지식정보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 지속적으로 건립, 리모델링하고 있는 도서관에 전문 사서직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마련 및 인권 보장은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기본적인 환경입니다.



3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서관 정책 개선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전면 배치가 필요합니다.

- 현재 초·중등학교 10개교 중 2개교에만 사서교사가 배치된 상태입니다.
 - 이로 인해 헌법에 명시된 기회 균등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초·중등학교에 사서교사를 필수로 배치해야 합니다.
- 전문 사서교사의 배치는 향후 당당한 유권자로 성장할 학생들의 지적 소양을 함양시키는 기본이며, 학생들의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전인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 전문성을 확보한 사서교사의 양성을 위해서는 문헌정보학과(도서관학과)의 교직 이수자 비율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자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사서의 인권 보장이 필요합니다.

- 전문적인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사서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인권 침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 사서들이 이용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직면하는 감정노동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 이용자의 인권이 소중한만큼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의 인권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 사서수당의 인상(1급 정사서 100,000원, 2급 정사서 이하 70,000원) 및 민원수당(100,000원) 신설을 통해 전문직 사서로서의 자긍심과 사기를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2 | 도서관의 지적 자유 보장



도서관과 사서의 지적 권리 보장이 필요합니다.

- 도서관의 지적자유 원칙에 따라 모든 도서관 자료는 제한 없이 모든 관점에서 정보를 찾고 이용할 권리의 성문화가 필요합니다.
- 도서관은 정보와 계몽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검열을 거부해야 하며, 도서관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 사서의 도서관자료 선정권한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정보접근권을 침해하지 않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도서관 장서를 이용하고 검열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도서관의 서비스권 보장과 이용자들의 정보접근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3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서관 정책 개선

3.3 | 도서관 확충 및 도서관 체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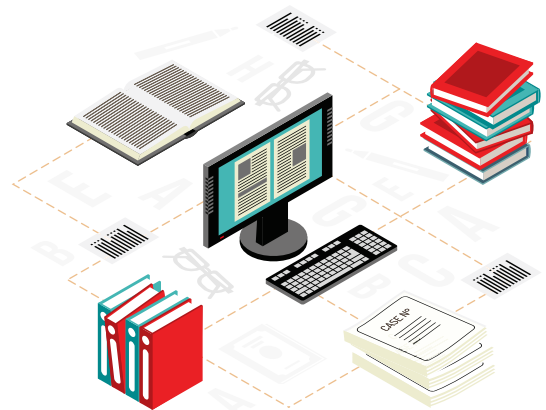
공공도서관 확충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1,172개관이며, 모든 국민들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인프라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 인구대비 도서관 수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1관당 봉사대상 인구 수	44,223	37,657	18,754	18,050	17,041	10,165	10,060	4,039
도서관 수(관)	1,172	3,360	17,227	4,607	3,889	3,415	6,042	16,500

- 공공도서관 확충을 통해 국민들의 지식 향상과 복지를 구현하고, 지식정보의 요람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는 국민들의 문화 활동, 평생교육의 증진, 기본권의 신장과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을 통해 국가 연구경쟁력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가 가능합니다.

- 대학도서관의 전자정보 라이선스 지원 정책을 유지함과 동시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수요도가 높은 핵심 전자 저널은 국가라이선스(국가부담 100%)로 확대 추진이 필요합니다.
 -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필수 전자저널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 투입(국가 R&D 예산 1% 정도)*으로 연구 격차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 2020년 국가 R&D 예산 24조원의 1%인 2,400억원 전자자료 구입비로 지원 필요
- 국가 주도의 전자정보 국가라이선스를 지원하는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 핵심 전자저널의 구독 및 공유 모델 정립을 위해 대학-정부-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국가라이선스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 국가가 100% 부담하는 대학 라이선스 지원 확대를 통해 원활한 전자자료를 제공하고, 대학의 교육·연구 환경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안정적인 연구 활동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학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대학의 연구 역량 및 국가의 연구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외국학술지 지원센터(FRIC)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동일한 외국학술지의 중복 구독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고, 주요 외국학술지를 구독 보존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의 도서관 정책은 이렇습니다.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 4개 전략방향, 13개 핵심과제, 36개 추진과제

비전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		
	핵심가치	사람에 대한 포용성	공간의 혁신성
전략방향	핵심과제		추진과제
01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도서관	시민의 힘을 키우는 문화서비스 확대	이용자 정보접근의 편의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문·문화·예술·체형 등 문화서비스 확대 소통·토론형 사회적 독서 프로그램 확대
	생애주기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확대 도서관 정보서비스 연계 확대 도서관 이용자 조사·연구 강화 이용자 맞춤형 큐레이션 정보서비스 강화 온라인 개방형 학습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확산 생애초기 독서운동 시행 확대 자기주도, 교과연계 학습서비스 강화 학술·연구지원 서비스 강화 생활 밀착형 전문정보 서비스 강화 국가도서관 정보서비스 강화
02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	분권형 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공동체 기억의 보존·공유·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 재정립 지역 자료의 납본·보존체계 구축
	교류협력의 플랫폼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 자료의 아카이빙 및 활용 강화 공공도서관 지역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학교도서관 교육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대학도서관 지식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03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	적극적 정보복지 실현	공간의 개방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불평등 지수 개발 및 활용 정보 및 매체이용 교육 강화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도서관 아웃리치의 지속적 확대
	경계를 넘는 서비스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두의 접근이 가능한 포용적 개방공간 확대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확대 사회서비스와 연계 도서관서비스 개발 및 확대 문화정보서비스의 확대
04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	도서관 운영체계의 질적 제고	도서관 협력체계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 사서 인력의 지속적 확대 사서 재교육 및 조직역량 강화 도서관 법·제도·평가의 현실적 개정 추진
	도서관 자원의 공유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역할 제고 도서관계 대내외 협력체계 강화 도서관 국제교류의 강화
	도서관 인프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픈엑세스(open access) 체계 구축 및 확대 디지털 자료의 확대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 시설·장서 지속적 확충 및 리모델링 확대 스마트도서관 모델 구축 및 시범사업

한국도서관협회 소개

성격 및 창립



- 전국 도서관 및 사서가 회원인 사회단체법인
- 국고보조금수혜기관(법정단체)
-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 창립 : 1945년 8월 30일

설립 목적



- 「도서관법」 제17조에 의거 도서관의 발전과 상호간의 자료교환, 업무협력과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 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 및 국민과 도서관의 공동이익 증진

주요 사업



- 도서관 문화발전에 필요한 정책개발 및 현안문제 대응
- 《도서관문화》 등 기관지 및 도서관 관련 각종 도서 등의 간행
-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 도서관 확충과 운영 수준 향상에 관한 컨설팅
- 도서관 권리와 도서관인 윤리 향상
- 도서관주간 등 도서관과 독서운동, 인문학진흥사업 추진
- 도서관 관련 전문도서관 설치와 운영
- 도서관 관련 통계의 관리
- 한국도서관회관의 건립·운영
- 국내외 도서관 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교류와 협력
- 한국도서관상 등 표창 등에 관한 사업
- 정부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임이나 위탁받은 도서관사업
- 도서관운영을 위한 각종 기준 및 표준 등의 제정과 자료 선정 도구의 작성·보급
- 국민의 정보와 디지털 활용 역량강화 지원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활성화 관련 사업
-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부대사업



한국도서관협회는
모든 이용자, 도서관, 사서를 위해
언제나 함께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 (우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한국도서관협회
전화 02-535-4868 팩스 02-535-5616 이메일 w3master@kla.kr 홈페이지 <http://www.kla.kr>